

5월2일(월)/갈 6:11~16

제목: 십자가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시키는 자들의 정체를 알았다.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집요하게 주장했던 이유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였다(12절). 로마 정부는 기독교는 박해했지만 유대교는 인정해주었고 유대교의 종교적인 관습까지도 허용하였다. 할례는 유대교의 중요한 관습이었다. 따라서 할례는 곧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었다. 그들은 할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 바울은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폭로했다. 할례를 주장하는 그들은 정작 그들은 스스로는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13절). 그러면 그들이 왜 할례를 주장하였는가? 자기들의 힘의 위용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13절). 그들은 누군가를 조종하고 굴복시키는 재미와 쾌감을 가지기를 원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자랑과 즐거움은 십자가뿐이었다(14절).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할례나 무 할례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15절). 크리스찬은 항상 십자가로 자기 사랑을 삼아야 한다. 십자가 때문에 웃고, 십자가 때문에 행복하고, 십자가 때문에 의욕이 생기고, 십자가 때문에 피곤하지 않는 자가 크리스찬이다.

5월3일(화)/갈 6:17~18

제목: 목회자의 마음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니 더 이상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17절). 이 말로 인해 바울의 손에 실지로 못자국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당시에 노예의 주인은 자기의 노예들이 자기 재산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낙인을 찍었다. 아마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위하여 육신과 마음에 받은 상처들이 예수님의 노예로서의 표식이라는 것을 말했다. 그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기에 더 이상 자기의 사도성을 부인하지 말라고 강경하게 호소하였다.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의 마지막 말을 은혜로운 축복의 말로 마쳤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18절). 바울은 때로는 논쟁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다 부수적인 것들이다. 목회자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항상 ‘은혜’ 라는 말이었다.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목회자도 이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중들은 오해를 하지 말고 목회자의 설교의 진위를 가려서 들어야 한다.

5월4일(수)/엡 1:1~2

제목: 평강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바울의 편지 서두는 거의 일정하다. 그는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과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위임받은 사실을 항상 언급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1절) 또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절)라고 하였다. 그는 거의 모든 편지 서두에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다. ‘은혜’ 는 공로 없이 받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선물이다. 선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는 항상 과분한 것이다. 평강은 단순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평강은 인생을 참으로 살만한 것으로 만들어 주는 모든 내적인 힘을 의미한다. 평강은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인간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는 이 두 가지가 사람에게 있기를 항상 기원하였다.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아도, 통장에 많은 액수의 돈이 있어도 평강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감옥에서 살아도, 하루 두 끼만 먹어도 평강이 있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 평강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없다는 것으로만 설명 가능하다.

5월5일(목)/엡 1:3~14 (1)

제목: 다르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4~5절). 하나님은 어떤 이를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도록 하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불러내신다. 그래서 그 부름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지 않을 수 없다(6절). 여기서 ‘거룩하다’ 는 말은 ‘다르다’ 라는 뜻과 ‘분리하다’ 라는 뜻이 포함된 단어이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 이전부터 보통 사람과 다르게 하기 위하여 분리하셨다. 교회는 보통 건물과 다르기 때문에 거룩하다. 주일은 보통 날과 다르기 때문에 거룩하다. 성직자는 보통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거룩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통 사람과 달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보통사람과는 어떻게 다르며, 그들보다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보통사람에 비해 전혀 다르게, 거룩하게 살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인지 아닌지를 물어야 한다. 다르게 불렀는데 전혀 안 다르다면 안 불렀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5월6일(금)/엡1:3~14 (2)

제목: 신비한 비밀을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비밀을 믿는 자들에게 알게 하셨다(9절). 그 신비한 목적과 비밀은 이 세계에 있는 무질서한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10절). 그것은 세계 도처에 있는 분열과 싸움을 말살하고 이것을 하나로 묶는 통일된 나라를 장차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신비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것을 위해 일할 자로 예정하시고 부르셨다(11절). 바울은 여기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하여 매우 위대한 사실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인침을 받은 것을 ‘성령님의 구속의 보증금’ 이라고 했다(12~13절). 보증금이란 어떤 거래를 할 때 기한 내에 반드시 잔금을 지불하겠다는 보증으로 미리 지불하는 매매대금의 일부분이다. 성령님이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는 성령님에 대한 경험은 장차 하늘에서 누릴 기쁨을 미리 맛보는 보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라는 보증으로 보내주신 것이다. 오늘날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전쟁과 증오와 분열을 없애고 하나님의 통일된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역군들로 예정되었고 부름받았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